

사회

“지하상가 휴일 늘리지 말라” 말쟁

광주도시공사 “충금상가 상인들 年 6일만 쉬어라” 이해못할 권리 제한

상인 90% “14일로 늘려달라” 요구 ... “1명이라도 반대하면 안돼” 목살

광주도시공사가 위탁관리중인 충금지하상가 상인들의 권리를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광주시 동구 충금지하상가 상인들은 최근 연간 6일의 휴일을 14일로 늘리기 위해 상인회 자체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의견이 90%로 압도적이었으나,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는 광주도시공사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를 거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충금지하상가 상인회에 따르면 상인들은 애초 연중무휴로 영업하다가 지난 2005년 설날·추석 등을 포함, 상가 자체적으로 연 6일을 휴무키로 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주 5일근무제 시행과 에너지 절감 및 경기 침체에 따른 고객 감소 등의 이유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도시공사 측에 휴일 수를 연 14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5년째 상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충금상인회는 그동안 광주시에 수십 차례의 진정을 내고 지난 9월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상인 대다수가 연 14일의 휴일에 찬성의견을 내면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강시장의 확답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총 85명의 충금지하상가 상인들은 투표를 했고, 기권 8명을 제외한 총 77명의 투표자 중 71명이 찬성해 이를 도시공사 측에 알렸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상인들 대다수가 찬성하면 상인들의 뜻대로 하겠다”던 강운태 시장의 답변과는 달리 “단 1명의 반대 의견이라도 있으면 이를 수용할 수 없

다”며 상인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인회는 도시공사가 상가 상인들의 자율권을 무시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휴일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류점 한 곳만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금상인회 송원봉(68) 회장은 “도시공사는 단지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주체일 뿐 전국 어느 지하상가나 공동상가에도 관리기관이 상인들의 자율적 권리를 방해하는 곳은 없다”면서 “특정업소의 입장만을 반영하느라 시장의 약속에 대해서도 모른

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가 공동 관리하고 있는 금남지하상가와 충금지하상가의 점포 임대차 계약서에는 휴무일 등에 관한 조건이 서로 달라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일고 있다.

금남지하상가 임대차계약서 16조에 따르면, 상인들의 3분의2 가 동의하면 휴일 등의 조건을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으나, 충금지하상가는 이 같은 조항이 아예 없었다.

이 부분과 관련, 충금상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서 금남상가 임대차계약의 16조 조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해 지난 4월 도시공사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7개 점포가 새로 바뀐 조항에 따라 계약을 맺었으나 당시 도시공사 모 관계자가 휴일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P업소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7개 계약서 모두를 회수, 이전 계약을 되돌아갔다.

충금상인회 송원봉 회장은 “하루 300~400만원의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이 부과되는 공동상가 특성상, 휴일은 함께 쉬어야 하는데도 특정업소나 요금 대책없이 영업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도시공사도 100개가 넘는 점포 중 수년째 유독 몇 곳만의 입장을 편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임동훈기자 exian@kwangju.co.kr



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통사고 줄이기 북구민 대 집대회’에 참석한 송광운 북구청장과 송두현 북부경찰서장 등 400명이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막대 풍선을 흔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가보조금 빼돌린 견인업체 과태료까지 4억 꿀꺽

북부경찰 30대 검거

‘광주시 북구 견인대행업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본보 10월 15일 6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0대 견인업체 대표가 유가보조금은 물론, 수익원대 과태료까지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북부경찰은 3일 견인대행업체를 수행하면서 4억원대의 과태료를 빼돌리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받아왔던 북구의 견인대행업체 C사 대표 김모(38)씨를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검압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구청 견인대행업체를 하면서 이중장부를 만든 뒤 견인한 차량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켜 보고하는 수법으로 견인된 차량 1만4000여대의 과태료 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과태료 횡령 사실은 경찰이 지난 9월에 불거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수사하던 중

적발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2년6개월간 폐차된 견인차를 정상운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실제 운행하지 않은 화물차를 운행한 것처럼 속여 광주시로부터 유가보조금 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화물차 크기(1t·1.2t 등)에 따라 600ℓ~1000ℓ 한도에서 ℓ 당 330여원이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노리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광주에서만 459여건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령자 전체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내사에 들어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모두 3214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이미 지급된 60여억원을 환수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160) 김종두



광양 50대녀 열차 치여 숨져

3일 새벽 2시15분께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 고가도로 아래 철길에서 박모(여·58)씨가 광양에서 서울 방면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기관사 임모·48)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임씨는 “인동리 앞 철길로 시속 40km 속도로 진입하던 중 100m 밖에서 박씨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지만 늦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4일 박씨를 부검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안수득기자 70su@

노숙자 돈 5천원 훔쳐 담배 산 20대

○--자신의 방에 놀러온 50대 노숙자의 주머니에서 5000원을 훔쳐 담배를 산 20대가 경찰서행.

○--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서모(28)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자신이 사는 C여관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낸 노숙자 함모(53)씨가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쳐 담배 2갑을 샀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3개월 전 노숙을 하다 만난 함씨가 이날 아침 일어나 자신의 방에서 잠자는 틈을 타 돈을 꺼내갔는데, 경찰에서 “신책하고 돌아와보니 계속 자고 있어서 화가 났다”며 훔칠수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고3 담임·수험생 자녀 둔 교사 수능시험 감독관 될 수 없다

광주시교육청 지침

고등학교 3학년 담임과 수험생 자녀를 둔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8일) 감독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제자, 자녀의 시험장 감독관 맡지 않으면 될 것 같지만, 이에 감독관에서 배제된다. 연고·혈연관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지침을 최근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수험생의 부정행위를 철저히 감독해야 하는 감독관인 만큼 감독 규칙도 엄격하다.

우선 감독 교사도 학생과 마찬가지로 고사장에서 신분은 확인 받아야 한다. 매 교시 감독 배치표는 시험시작 직전에야 공개된다.

1개 시험실 당 감독관은 2명으로 각 교시별로 교체하는 게 원칙이며, 5개 교시 중에서 최대 4대 교시까지만 감독 가능하다.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시험 감독조(2인 1조)도 같은 학교 재직 교사로 짜여지지 않는다. 중·고 교사 간,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한 조로 편성한다. 2회 이상 같은 조의 감독관이 동일한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으며, 감독조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도 금지된다.

감독관의 동선도 정해져 있다. 부정행위 감시를 위해 제1 감독관이 수험생의 신분 등을 확인하는 경우 제2 감독관은 반드시 시험실 정면 중앙에서 시험을 감독해야 한다.

또 시험 도중에는 인שה가 잘못된 것과 관련된 것 외에는 질문을 받을 수 없다.

/윤영기기자 penfoot@

‘수뢰’ 전 목포수협장 법정구속

항소심서 징역 2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포수협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송희호)는 3일 취입청탁 등 명목으로 돈

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목포수협장 김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장으로 권한을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점과 부하 직원에게 범행 증거를 위조하도

록 지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3월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카를 취업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홍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 가입, 채무 변제 기한 연기 등을 대가로 3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차례에 기소돼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최경희기자 choice@

여고생과 성매매 5명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3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과 성매매를 한 최모(29)씨 등 성매수 남성 5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검압 조사 중이다.

최씨 등은 인터넷 모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고생 A(16)양 등 2명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0만~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www.hanbitgosi.co.kr

최다수강생
최다합격을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7·9급 행정직/세무직/법원직/검찰직
교행직/농업직/기술직/소방직/교정직

호남최대 7·9급 공무원시험전문학원 — 개강 11월 1일 주/야, 종합/단과

한빛고시학원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직영학원] 김영면입학원 227-8088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SINCE 1982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www.kjhr.com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